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 (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인도 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뻗고 있습니다.
 인도불교진흥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인도돕기)

새싹포교 새 지평 연다

조계종, 유치원 현황조사 “중장기 대안 모색”

어린이 포교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조계종이 발벗고 나섰다. 전문지도교사 양성과 어린이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포교 프로그램의 부족 등 불교계가 안고 있는 어린이 포교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 포교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불교계가 운영하는 266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불교계 유치원 현황조사'를 8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는 우편조사와 전화조사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유치원 주소, 홈페이지, 설립단체, 교사현황, 학급현황 등의 기본사항이 조사된다.

그 동안 불교계의 유치원 및 어린이 현황조사는 각 사찰별, 어린이 포교단체별 자체조사로 몇 차례 실행됐을 뿐 종단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포교원이 2000년 전국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종교를 가진 학생 가운데 초등 학교 때 종교를 선택한 어린이는 83.7%에 달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

원부가 발표한 '2003년 유치원 현황자료'에서 전국 유치원 8,292곳 중 불교관련 기관에서 설립한 유치원 수는 123곳으로 1.5%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어린이 포교시스템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에 따라 포교원은 10월까지 조사를 마무리, 추가 조사·분석 작업을 통해 향후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한 대안책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통일된 교재·지침서 작성, 어린이 포교프로그램

개발, 계층별 실행단계간 네트워크 구축 등 중·장기 포교정책을 수립해 종단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갖춰 나간다. 또한 교구본사 중심으로 어린이포교를 관리하는 한편 불자 학부모들을 위한 입학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도국장 지일스님은 “유아교육협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나아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등 계층 포교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 포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ipok@buddhania.com

8·15 남북합동법회 평양 광범사서 봉행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8·15 남북합동법회가 15일 평양 광범사에서 남한 불교대표단(단장 명진) 8명과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서기장 등 남북 불교도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남한 불교 대표단은 14-17일 평양 능라도공원 등지에서 열린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 참가단 일원으로 14일 방북, 본행사 참관을 비롯해 조별원과 남북 불교 현안, 남북 화해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봉명 기자 bypark@buddhania.com

평양 법운암 단청·개금불사 입재 남측 기술진 5·북측 25명이 18일까지

분단 이후 민족 문화를 주제로 한 최초의 남북공동작업인 평양 법운암 사비단청 및 개금불사가 시작됐다.

북한사찰 단청불사 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법타·학담·미산)는 7일 평양 법운암에서 남북 공동사비단청 및 개금불사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단청 및 개금불사는 김준웅(총남 무형문화재 단청장 제33호) 씨를 비롯한 남측 기술진 5명과 북측 기술진 25명이 참석해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한국종교공동체연대 발족

불교 등 3개 종교 “평화·생명위해 헌신” 선언

실상사·정토회·다일공동체·두레마을·오순절평화의마을 등 불교·개신교·가톨릭 3개 종교 공동체 100여명의 성직자들은 14-16일 남원 실상사에서 '한국종교공동체연대 출범식 및 제1회 수련대회'

를 개최했다. 15일 출범식에서 3개 종교 성직자들은 “종교는 지구윤희의 보루가 되고 평화와 생명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각 종교의 장점들로 인류의 공동선을 이룩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nia.com

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생명존중과 환경개선 및 상생의 삶 △생활종교로서 종교개혁운동 △남과 북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을 활동방향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nia.com

대정부 정책 자문위 21일 출범

조계종, 환경 등 14분야 21명으로 구성

조계종은 21일 오후 6시 타워호텔 중식당에서 대정부정책자문위원회 창립대회를 봉행했다.

대정부정책자문위원회는 법등·현용 스님(이상 종회의원) 해인사·불국사·화엄사 주지스님 등 5명의

스님과 환경, 행정자치, 문화관광, 건설교통, 보건복지, 교육, 검찰, 법조, 경찰, 여성, 기업, 언론 등 14개 분야 재가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대정부정책자문위원회는 총무원장 직속 상설기구로 설치되며,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 현안을 다루게 된다.

한명우 기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막

“천마(天馬)의 꿈”을 주제로 한 2003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13일 막을 올렸다. 72일간 신라 천년 고도 경주를 꿈과 낭만으로 물들일 이번 엑스포에서는 세계 신화전, 세계 꼭두각스 축제, 에밀레-천년의 소리 등 각각의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벌어진다. 사진은 첫날 열린 '에밀레-천년의 소리' 공연 모습. 관련기사 26면 경주=박원구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권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경남: (055)353-1196 제천: (043)644-4366 경남: (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올해 한국갤럽이 20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인구 조사결과를 보면 불교가 27%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 21.2%, 가톨릭 7.6%였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개신교가 28.7%로 불교 15.7%보다 훨씬 높았고, 인천·경기 지역 역시 개신교가 23.4%로 불교 19.6%보다 높았다. 수도권지역 포교에 대해

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함을 잘 보여주는 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이 13일 열린 직할 교구총회에서 일정한

교증흥을 위해서는 수도권 포교가 매우 중요하다. 주지 임명시 계획서를 반드시 보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는 불교의 미래를 활성화하고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적극 나설 경우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갤럽의 조사와 총무원의 인식을 종합해 보면 수도권 포교, 그것도 미래를 내다보는 어린이·청소년 포교가 살아나지 않고는 불교의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수도권 포교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이제 지상과제가 됐다. 직할교구 사람들의 어깨에 불교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수도권 포교 발등의 불

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라며 포교 활동을 주지 임명시 최우선적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조계종 직할교구 사찰은 모두 260여 곳이다. 사찰 각종 법회를

27~31일 조계종 임시중앙총회

동대 이사후보 추천, 법규위원 선출취소 등 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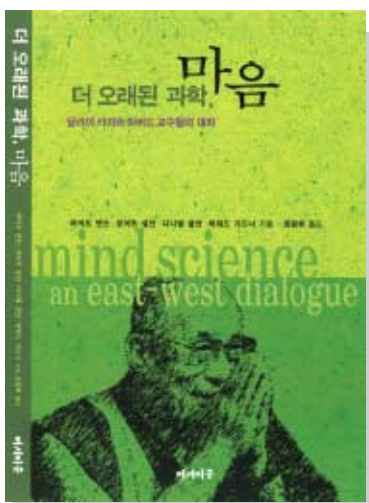
조계종 제159회 임시중앙총회가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조계사 교육관 4층에서 열린다. 이번 임시중앙총회는 영단스님 등 34명의 중앙총회위원들이 법규위원 선출 취소 및 중징계 결의를 안건으로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임시중앙총회에서는 법규위원 선출 취소 및 중징계 결의의 건,

동국학원 이사 후보 추천 동의의 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총회는 일정에 음력 8월 초하루(8월 28일)가 포함돼 있어 주지 소임을 맡은 총회위원들의 참석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총회는 사찰 정기법회를 최대한 피해 일정을 잡아 왔다.

한명우 기자 mhwan@buddhania.com

명상은 몸과 마음 건강에 큰 도움... 미국인 천만명 '명상 붐'

- <타임>지 최근호 보도



허버트 벤슨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면 / 9,000원

마음 더 오래된 과학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하다

<타임>지 최근호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 행동의학과 허버트 벤슨 박사가 연구한 명상할 때의 뇌상태 결과를 소개하는 등, 명상이 심장병, 암 등의 만성적인 난치성 질병의 고통을 예방하거나 완화한다고 소개했다. 또 우울증, 주의력 결핍증 등 심적 불균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명상요법이 널리 활용

된다는 연구결과도 소개하고 있다. 하버드 의대를 대표하는 허버트 벤슨 박사와 하버드 석학들이 달라이 라마를 초청, 마음과학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마음과 몸 연결 작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이다.

마음과 몸의 섬세한 관계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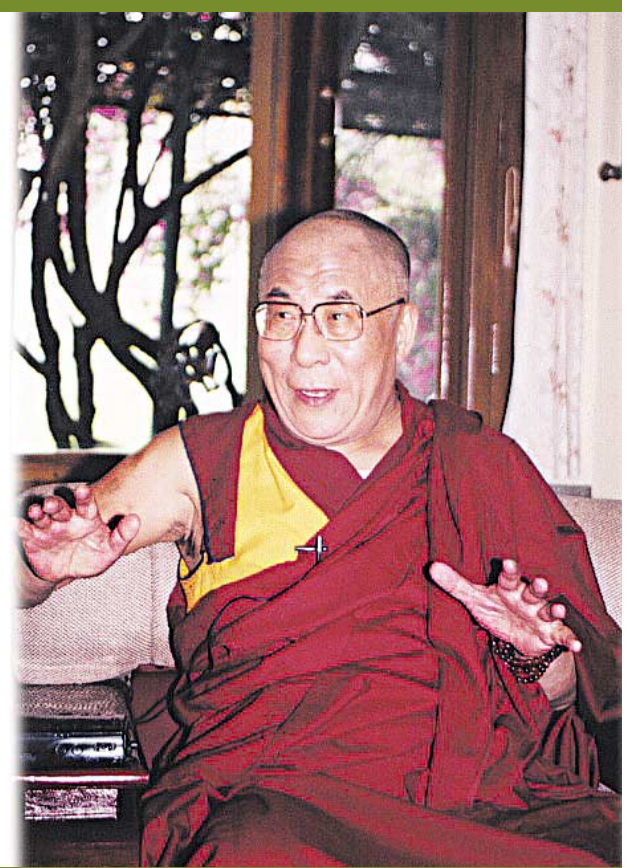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상 잠재력,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작을 기록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달라이 라마

“마음은 정신적 사상이 상호 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법보시는 02)737-0695로 연락 주십시오.